4년만의 개최 담양대나무축제 확 달라진다

'New Bamboo Festival'로 바꾸고 5월 3~7일 추성경기장 등서
지역민 소득 연계·체류형 야간 콘텐츠·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채

담양의 대표 축제인 대나무축제가 4년 만에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돌아온다.

담양군은 최근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담양대나무축제의 추진 방향과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담양대나무축제는 'New Bamboo Festival'이라는 새로운 축제명으로 변경돼 오는 5월3일부터 5일간 추성경기장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주무대를 추성경기장 내 야외음악당으로 옮겨 먹거리 부스와 함께 공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어울림 축제를 준비한다.

축제가 지역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 수익형 축제를 도모하고 관내 청소년 및 대학생들과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야간경관조명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야간 체험프로그램, EDM 공연, 담양 전통 주류판매 등 야간 관광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의 대표축제인 대나무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의 대표 축제인 대나무축제가 4년 만에 열린다. 지난 2019년 축제 모습. 〈담양군 제공〉

장흥 물축제, 4연속 '최고 브랜드' 선정

장흥군이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4년 연속 '2023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사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에 주는 상이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 지정축제'에도 이름을 올리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축제는 매년 여름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장흥읍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열리며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지상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樂 풀파티 등 방문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물축제 기간에는 매년 40~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장흥군은 2023년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물축제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 브랜드"라며 "올해는 다양한 세대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보다 활기차고 젊어진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만복을 기원합니다 정월대보름인 5일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주민들이 마을 어귀의 선돌(입석)에 마을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볏짚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있다. 선돌 할머니와 선돌 할아버지로 불리는 2기의 입석은 마을수호신으로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선돌 감기로 마을의 단합과 만복을 기원하고 마을잔치까지 곁들이는 세시풍속이지만 줄어드는 주민 감소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늘린다

사회재난 사망 등 3종 추가 24종…감염병 사망 300만원으로 올려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며 "군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198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민원서비스 우수

민선 8기 소통·섬김 서비스 노력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오른 나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민선 8기 소통과 섬김의 행정서비스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민원실 팀장을 창구로 배치하고 군과 읍사무소 민원실 창구직원의 근무복을 정장으로 교체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또 창구 직원의 명패 부착과 전직원의 명찰 패용으로 책임감 있는 민원실명제를 도입했다.

구복규 군수 취임 이후 '찾아가는 취임인사', 직업·직능단체 간담회,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힌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도 섬김의 마음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지붕개량 사업 지원

357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
올해 13억5000만원 투입키로

나주시가 시민의 건강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올해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주택 312동, 비주택 35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357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는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동당 1000만원 내에서 지붕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철거 및 개량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0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비싼 철거 비용 등으로 방치돼왔던 노후 주택, 창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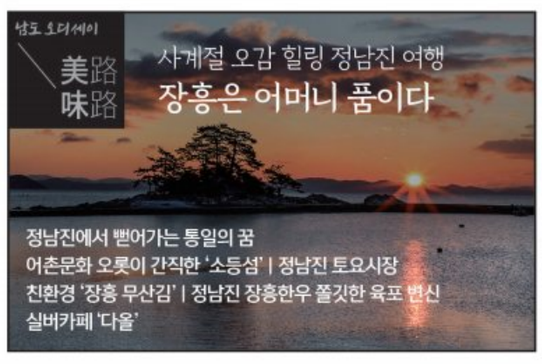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2월호

2023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⑦
'조선의 선비' 정여창 배향하는 함양 남계서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④
한국야구 성지 무등야구장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②
명분 없는 권력의 광기, 조선 중흥의 기회 걷어차다

예향 초대석
AI·데이터 아티스트
민세희
"콘텐츠와 문화 기술 만나면 잠재력 무한"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독자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작품 쓰고파"

해외문화기행⑬-헬싱키(하)
감각적 건축물 즐비한 '세계 디자인 수도' 헬싱키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④ 부산광역시
물류도시를 관광도시로 바꾼 공공미술의 힘

스포츠 이야기
광주FC, 치앙라이서 2023 시즌 담금질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④ 안산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별이 된 아이들과 함께 희망 만나는 연대의 공간

문화 트렌드
종이책 완독보다 전자책 '발췌독'으로 진화하는 책 읽기 감수성